

정책연구용역활용보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연구용역과제명	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 (서구 아미동)	연구기관/책임연구원	(사)부경역사연구소 / 강대민
부서/과제담당관	문화유산과 /곽옥란	담당공무원	이창섭
연구기간	2018년 7월 30일 ~ 2018년 12월 21일(5개월)		
활용구분	1. [] 법령 제·개정 2. [] 제도개선 3. [] 정책반영 4. [√] 정책참조 5. [] 미활용		
연구목적	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형성된 아미동에 대한 구술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연구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. 이를 위해 직접 조사가 가능한 최대 연대인 한국전쟁을 겪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여 초창기 마을에 대한 구술자료를 사료화 할 수 있도록 한다.		
연구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미동 공간의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주택구조 변화와 구성원들의 상호인식 확인 ○ 전국각지에서 이주한 아미동 거주민들의 경상도 방언 습득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구술자의 의견 수렴 ○ 아미동 거주 여성들의 과거 삶의 모습을 파악하고 과거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확인 ○ 산상교회 중심으로 나뉜 마을 공간들의 차이와 각 거주 지역 주민들의 가치관, 생활환경 등에 대한 조사 및 차이점 확인 ○ 부산시 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된 아미농악(부산농악)과 관련한 구술을 채집하여, 아미농악의 탄생과 단원들에 대한 이야기 및 무형문화재 등록과정의 이야기들을 확보 ○ 수집된 구술자료의 활용방안 역사적 가치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연구 		
활용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집된 구술자료는 종래 영세했던 문헌자료의 공백을 메워 마을의 형성과 변천 및 마을구성원의 일상사를 밀도감 있게 규명하여 근현대 부산의 역사성·지역성을 확충함은 물론 스토리텔링의 기초자료까지 활용함으로써 부산역사의 대중화까지 모색할 수 있음 ○ 향후 시행될 부산광역시 주도의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층적인 주민지원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 ○ 본 구술자료는 노년층의 의식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로 이를 통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적합한 복지 정책을 구성하고 제공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		
활용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미동 사람들의 삶에 관한 구술자료를 부산 근현대 구술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부산지역 생활사 관련 자료로 활용 ○ 연구용역에 의해 수집된 구술자료 및 관련 콘텐츠는 박물관, 도서관 등에서 전시·교육·연구자료로 활용 		